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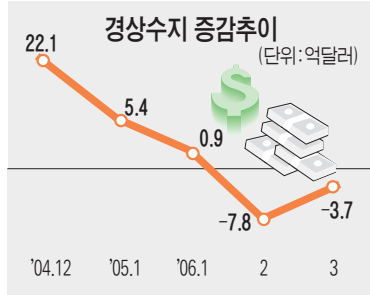
경상수지 3년만에 두달 연속 적자

低환율-高유가 '주범'

해외여행비 증가 등 서비스수지 크게 악화 4월도 적자 전망...국내총소득 '-'로 돌아서

올들어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 추세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내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기업의 설비투자 기피가 계속되면서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정보기술(IT)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달 경상수지는 3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달의 7억8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 추세를 이어갔다. 경상수지 적자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3월(11억2천만달러)과 4월(2억1천만달러) 이후 근 3년만에 처음이다.



고 있는 환율 효과가 본격화되고 국제유가도 계속 오를 경우 경상수지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은 관계자는 "이달에도 대외배당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적자폭도 더 커질 수 있다"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4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대비로는 6.2%의 성장률을 보였고 전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연간성장률은 5.3%에 달해 관측은 성적이란 할 수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 민간소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전방위 효과가 있는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1·4분기 국제유가 급등과 IT 제품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무역손실이 16조3천879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전망 좋지 않다 선행지수 2개월째 하락 소비재판매 증가세 반전

소비재판매가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산업생산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경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째 하락해 경기 정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 콘셉트카 '씨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06 부산국제모터쇼 보도발표회에서 기아자동차가 선보인 콘셉트카 씨드. /연합뉴스

선장 잃은 현대차 비상체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현대차호(號)의 앞날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운전자 없는 현대차, 경영공백 우려>는 현대차의 그동안 정 회장의 카리스마를 발판으로 급성장을 이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과를 떠나 현대·기아차가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부 자동차메이커로 성장한 데 정 회장의 활발한 현장경영과 지속적인 품질경영이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미FTA 관세철폐 초민감 품목은 제외" 김중훈 협상 수석대표

김중훈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26일 "한미 FTA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정부의 한미FTA 협상 기본 방향에 대해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 해외사업 '일단 스톱' 2인자 없어 경영공백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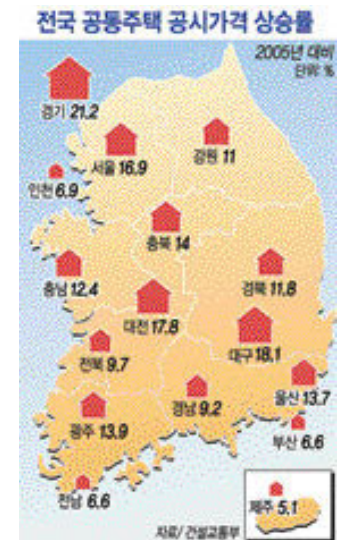
계자들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40개 계열사가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두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룹 구조상 전체를 아우르고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 이가 필요한데, 전문경영인으로는 수많은 계열사를 잡음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해외사업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공동주택값 13.9% 상승

동부센트레빌 평당 3,430만원...전남은 6.6% 올라

건교부 공시가격 발표

올해 광주·전남지역 51만6천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3.9%, 6.6% 상승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서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상당폭 조정될 전망이다.



로 9.4% 높아졌다. 공동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30평형이 4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다세대 5평형이 1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공시가격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고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4.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8.6%), 대전(7.6%), 울산(5.5%) 등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은 이견희회장 자택 85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견희 회장의 자택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자택은 공동주택 871만가구와 단독주택 430만가구 등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1천301만가구를 통틀어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다.

이 회장은 공시가격 85억2천만 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하고 있다. 이 자택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0억7천600만원 올랐으며 공시가격이 적정 시가의 8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이 회장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주택은 대지면적 649평, 건물연면적 1천4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층이다. 이 회장은 또 전국에서 3번째, 4번째로 비싼 주택의 소유자로도 돼 있다. 국내에서 두번째로 비싼 주택은 동작구 흑석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소유자는 방상훈씨이며 공시가격은 71억7천만 원이다. 단독주택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집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소재 주택으로 10만7천 원으로 산정됐다. /연합뉴스

銅값 폭등 '10원 동전' 어떡 하나

한국은행이 10원짜리 주화의 소재와 디자인을 전면 교체키로 하고 도안 마련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구리의 국제시세가 연일 폭등, 환은이 고민에 빠졌다. 27일 한은과 조폐공사에 따르면 런던시장에서 구리의 t당 가격은 25일 기준으로 7천360달러를 기록, 불과 하루만에 1천달러 이상 폭등했다. 구리가격은 작년말 t당 4천542달러에서 올해 2월말에는 4천886달러로 오른 후 3월말에는 5천438달러로 치솟았으며 4월들어 6천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7천달러까지 훌쩍 넘어섰다. /연합뉴스

삼성, 3세대 'DVB-H폰' 유럽 공급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방식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탈리아 이동통신 시장에 '3G(세대) DVB-H폰'을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내달중 텔레콤 이탈리아(TI)와 허치슨 이탈리아(H3G) 양사에 각각 3G WCDMA(광대역코드 분할다중접속) 방식 DVB-H폰 SGH-P920과 SGH-P910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DVB-H는 유럽 노키아가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TV 전송방식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이탈리아에 DVB-H폰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DVB-H 서비스가 삼성 휴대전화로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탈리아 최대의 통신 사업자인 TI는 삼성전자와 이브로 기술을 도입, 내년 상반기 중 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 최대의 3G 통신 사업자인 허치슨 이탈리아는 2003년 유럽 최초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금값 폭등...25년만의 최고치

642달러...1년새 46% 올라 이는 마감이 기준 1980년 12월 이후 최고로, 장중가는 지난 20일 649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금 가격은 최근 12개월 동안 46% 급등했다. 금값 급등은 이날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금이 달러화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채용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예)에드워드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시대상사 마케팅기획 및 광고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62-527-6655